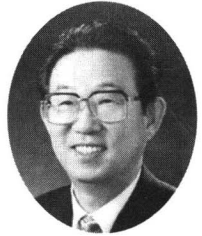


美國産業醫學의 開拓者 Hamilton 女史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 돈 권

유럽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미국은 19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농업국에 불과하였으나, 유럽의 공업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공업발전이 급속히 진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의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광산의 진폐증, 각종 공장의 연 중독, 인중독, 수은중독 등 많은 직업병이 발생하게 되어, 1910년대는 미국 산업보건의 黎明期(여명기)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산업보건활동은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1910년에 비로소 연방조직 차원의 광산국이, 그리고 1914년에 산업보건부가 설치되어 국가수준에서의 산업보건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각 주마다의 독자성이 강하여 행정적인 규제가 동일하지 않은 점과 보험회사 등 민간수준의 활동이 산업보건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미국산업보건 발전의 특징인 것이다.

영국 산업의학자들이 지적하는 미국 산업보건의 우수한 면은 그 첫째가 세계 다른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산업보건의 발전이고, 그 둘째가 장해보상에 대한 소송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산업보건의 시작된 것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미국의 산업보건사에서 잊어서는 안될 인물은 아마도 Alice Hamilton(1869-1970)여사일 것이다. 전공은 병리학으로 출발하였지만 직업성 질환을 연구한 산업의학자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학자이다. 그녀는 1869년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이다. 의학공부는 Michigan 대학에서 수료하였다.

24세에 의사가 된 후 인턴은 미네아포리스의 모자병원과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모자병원에서 수련하였고 계속하여 독일의 뮌헨대학과 John Hopkins 대학에서 병리학과 세균학을 전공한 후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여자의과대학에서 병리학을 강의하게 된 것이 의사 수련이 끝난 첫 직장생활이 되었다. Harvard 대학에서 여성 최초의 교수로 16년간(1919-1935) 산업의학의 강의를 하였다. Illinois 주정부에서 산업중독에 관한 연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이 40년간에 걸친 실질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보면 연 중독과 규폐증 등 기업이나 일반의사를 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한 건강장해들을 찾아내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수준 향상

에도 기여하였으며 「산업장 독성 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근로자들의 산재보상법 제정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업적들이 인정되어 50세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Havard 대학의 산업의학 담당 조교수로서 채용되어 66세까지 후세교육에 전념하게 하였다.

미국 산업의학의 여명기인 1910년 Brussels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환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에 미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미합중국에 있어서의 백연산업장(White Lead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이란 연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으면서 직업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리노이 백연산업장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미국사람으로서 「Puerto Rico에 있어서의 십이지장충 감염」을 발표한 Bailey Ashord 소령과 Hamilton여사 단 두명만이 참석하고 있었다고 한다.

Hamilton의 연제 발표가 끝나자 사방에서 연중독자의 유병률, 연과 유해업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산재보상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조사되고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미국은 전국 차원에서 조사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때 Belgium 노동국의 Dr. Glibert가 일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산업보건이 없는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때 미국에 대한 이 수모를 Hamilton은 뼈저리게 느끼고 이 자리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자기가 나서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고 한다.

귀국하여 본연의 교육과 직업 위원회의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상무국 노동국장인 Neil로부터 미국 내의 모든 연 취급 사업장을 조사 의뢰를 받게 되어 병리학이란 전공을 버리고 산업의학자로 변신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개혁자들의 모임인 Hull House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미국에 이민 온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향상 시키려는 철학적 배경이 작용한 것도 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Hamilton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미전국의 연 취급 산업장 조사 사업에 몰두하여 이 조사결과를 1911년 노동국 보고서 95호(Bureau of Labour Bull., No.95)에 발표하여 미국의 산업의학자로 공인 받게 되었다. Hamilton은 Kober와 Hausen등이 편집한 「Disease of occupational and vocational hygiene」이란 저서에 미국의 산업의학자를 대표하여 투고할 정도로 유명하였지만 Brussels에서의 수모를 Teleky가 1948년에 발간한 「History of

Factory and Mine Hygiene」의 서문에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모를 74세에 저술한 자서전인 「Exploring the Dangerous Trades」의 제8장 연방 조직사업에서 반복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Hamilton이 그 당시에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을 계기로 하여 1910년에 미국노동업법회의 주최로 미국 직업병회의가 개최되고, Taylor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가 1912년에 간행되었으며 또 같은 해에 미국소비자연맹의 노동법에 대한 법적 변호위원회 의장인 Goldmark양이 「피로와 능률(Fatigue and Efficiency, A Study in Industry)」을, 1915년에 「The Occupational Disease」가 Thomson에 의해서, George 와 Price의 「Morden Factory」등 산업의학에 관한 저서가 많이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기술하였지만 1916년 Kober와 Hausen이 편집한 「Diseases of occupational and vocational hygiene」은 미국내외의 유명한 산업의학자 28명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Hamilton을 비롯하여 영국의 Sir Thomas Morrison Leegge, Sir Thomas Oliver, 그리고 독일인 대학의 Teleky 교수 등 국제적인 석학들이 쓴 당시 미국 산업의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Dublin이

1911년부터 1913년까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3년간 사망자를 직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를 노동성 통계국이 「직업으로 인한 사망원인(Cause of Death)」이라는 표제로 발표하였다.

산업보건 및 산업의학을 위한 교육은 1918년에 Havard대학과 예일대, 존홉킨스 대학에 산업보건 과정이 개설되었고 1919년에

산업보건 전문잡지 「The Journal of Industrial Hygiene」이 그리고 「The Human Machine and Industrial Efficiency」가 Lee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에 미국의 산업보건과 산업의학 발전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진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산업이 전세계를 무대로 발전하는 수준에 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Hamilton이 제4차 국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 회의에서 받은 수모에 대한 집념이 승화된 결과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국 산업의학의 개척자로서 Hamilton은 추앙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지녔기에 1947년 미국 공중 보건협회로부터 Lasker상을 수상받았다.

사라져야 할 부서 이기주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흔히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의 입에 맴도는
 이 속담은 우리 회사 처지에서도 꼼꼼히
 세겨야 할 뜻이 있는 듯 합니다. 잘 생긴 나무
 한 그루는 가지 하나 잘 생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술한 가지들이 서로 저 혼자만
 모든 영양과 물을 빨아 들이겠다고,
 그래서 혼자 잘나 보이겠다고 아우성친다면
 그 나무가 온전히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전체가 나무라면
 이 나무는 부서라는 많은 가지들이 한 자태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보다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부서 중심주의를
 타파합시다.
 ‘나’ 보다는 ‘부서’ 를,
 ‘부서’ 보다는 ‘사업부’ 를
 ‘사업부’ 보다는 ‘회사’ 를
 먼저 생각합시다.

